

광주미협, 아트광주18 불참 선언

“시 행정 허술”...광주시 “재공모해 단체 선정”

광주시 미술협회가 광주시의 허술한 문화정책을 비판하며 ‘2018아트광주’ 불참의 뜻을 밝혔다.

광주미협(회장 박수봉)과 아트광주18 준비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아트광주18 참여 미술단체 공모를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시는 최근 아트광주18 행사와 관련,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참여 공모 마감시한을 1월 25일 오후 6시로 표기해 놓고 ‘실제 마감시한은 오후 5시였다’고 말을 바꿔 단체의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가 항의 하자 ‘공고안이 오타였다’고

변명했고 결국 1차 공모에 접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2차 공모에도 담당자는 고압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제안서 설명회 장소를 표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며 “당일(지난달 26일 오후 2시) 25분전에 장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문화·예술을 건설공사 입찰자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역 미술계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술대전 사업예산을 4억5,000만원으로 줄여 전시장 임대료, 부스 설치 등을 국제적 수준

에 맞추기 힘들게 됐다”며 “모든 책임은 광주시에 있는 만큼 30회째 이어지고 있는 아트광주 올해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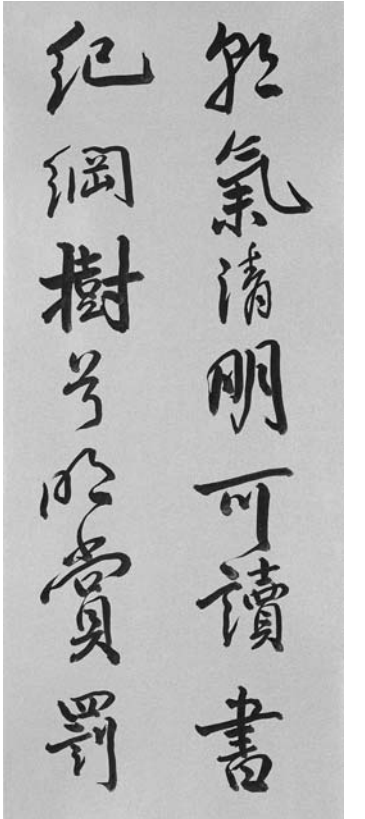
이에 대해 광주시는 “1차 공모는 내부문서와 공고문의 마감시한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2차 공모를 다시 했다”며 “하지만 2차 공모에서 광주미협만 참가 뜻을 밝혀 설명회를 앞두고 2시간 전부터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협 측에서 받지 않았고 설명회 시작 30분전에 연락이 이뤄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광주미협 측은 행사 시작 40여분이 지난 뒤에 도착해 평가위원들이 제안설명 기회를 줬음에도 거

부하고 평가장소를 나갔다”며 “현재까지 참가 단체가 없는 만큼 3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3차 공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 지역과 컨소시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미술대전 개최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광주시미술대전 조례가 지난해 6월 15일자로 폐지돼 올해 예산편성안에서 제외되어 부스 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긴급 편성했고,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수당 양희영 작

먹으로 맺은 인연

학정 이돈홍 여성 서예제자들 9~15일 제17회 지선묵연회전

학정 이돈홍 선생을 모시고 서예를 공부하는 여성 회원들의 단체인 지선묵연회(止善墨緣會·회장 양희영)는 여성 서예인단체로서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다.

회의 명칭은 ‘대학(大學)’의 첫머리에 나오는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큰 배움의 길은 명덕을 밝히고, 백성과 친하고, 지극한 선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에서 ‘지선(止善)’ 두 글자를 가려 지은 것으로 먹으로써 인연을 맺은 회원들의 지향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3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지선묵연회는 2년에 한번씩 회원전을 열어 오고 있다.

올해 제17회 지선묵연회전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갖는다.

학정 이돈홍 선생의 찬조작품을 비롯해 양희영 회장 등 회원 32명의 서예 5체(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와 한글, 문인화, 전각 등 67점을 선보인다. 개전식은 9일 오후 5시. 문의 062-222-4155. /이연수 기자

어르신들 모시고 잔치 한마당

남구 빛고을 실버잔치 8일 남구청 대회의실 실버대학 1년간 성과 전시·공유...감사 전해

남구청 소속 노인교실 ‘빛고을 실버대학’(학장 이인후)이 오는 8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실버잔치를 연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인 ‘빛고을 실버잔치’는 올해 2회째를 맞아 빛고을 실버대학에서 1년간 도전과 배움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을 전시하고 발표하며 빛고을 실버 회원들을 후원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다.

이번에도 ‘효’를 실천하는 남구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후원에 힘입어 지역 어르신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남타 공연

이번 행사는 링컨하우스광주 학생들의 전통문화공연 애한, 부채춤과 실버대학에서 준비한 상황극, 실버댄스, 국립 국악원 협찬으로 마당극 ‘뽕파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빛고을 실버대학은 백세 시대에 맞춘 교육을 통해 노년을 허비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노인들이 소외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를 통해 노인 문제예향을 돕기도 한다.

빛고을 실버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상황극 프로그램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노인 문제를 직시하는 동시에 해결점을 제시하고 모든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연극이다.

노부부의 대화속에 공감하며,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진다. 이인후 빛고을 실버대학 학장은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 사회가 있다”며 “희망의 새 봄이 찾아오듯 새 삶을 찾아드리고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 실버문화공연을 정성껏 마련했으니 꼭 오셔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8447-7797. /이연수 기자



남원시 어현동아트빌리지(Art Village)에 문 연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개관

5월까지 ‘김병종 기증작품 특별전’

‘생명의 노래’ 시리즈로 유명한 화가 겸 문인인 서울대 미술대 김병종 교수의 이름을 딴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이 지난 2일 남원시 어현동아트빌리지(Art Village)에 문을 열었다.

미술관은 38억원이 투입돼 8,049㎡ 부지에 지상 2층, 전체 건물면적 1,442㎡ 규모로 건립됐다.

3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3,000권이 넘는 책을 갖춘 ‘화첩기행 북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남원시는 남원 송동면에 고향인 김 교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화가라는 점에 주목해 박물관에 그의 이름을 넣었다.

김 교수는 한국 특유의 감성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 화가로 ‘바보예술’,

‘생명의 노래’ 등으로 유명하다.

베스트셀러인 ‘화첩기행’을 펴낸 문인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미술관에 10m의 초대형 작품인 ‘숲은 잠들지 않는다’를 비롯해 그의 작품 309점을 기증했으며 추가로 90여점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들 기증작품 가운데 41점은 개관을 기념해 이날부터 시작된 ‘김병종 기증작품 특별전’에 선보였다.

전시회는 5월 27일까지 이어지며 관람료는 받지 않는다.

박물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투자 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 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